



춘천 남이섬 '한국관광 100선' 4회 연속 선정

강원도 춘천시의 대표적 관광지 남이섬이 문화체육관광부 '제4회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마다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4회째다.

남이섬은 약 170여 개국에서 연간 100만 명이상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연간 600회 이상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린다.

특히 자작나무길, 잣나무길, 메타세쿼이아길 등 운치 있는 숲길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 봐야 할 명소'로 알려졌다.

남이섬 '잡-와이어'(Zip-wire)도 인기가. 잡-와이어는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 무동력 탑승장치를 활용해 이동하는 레저시설이다.



남이섬 주차장에 세워진 약 80m 높이의 타워에서 시속 60~80km의 빠른 속도로 남이섬이나 자라섬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잡-와이어를 타고 1분 30초가량 하늘에서 북한강 일대를 바라보며 짜릿한 쾌감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인 '춘천 마임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올해 30주년인 춘천 마임축제는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을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내 삶의
하프 타임
History Art Leisure Festival
춘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춘천에서 만나는
그리움, 설레임, 즐거움, 그리고... Exciting!!!